

*한혜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동시대 무용의 개념

- 1. 무용의 시대성
- 2. 커뮤니티댄스의 동시대의식

III. 포스트 커뮤니티댄스

- 1. 포스트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관여 구조
- 2. 자기표현으로서의 몸과 창의성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15.01.30.

심사일 : 2015.02.28.

게재확정일 : 2015.03.10.

A meaning of creativity in the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Han, Hea-ree
Kyungshung University

The study on the meaning of creativity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aims at suggesting the concept of post-community danc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society by connecting the change of concept on body into the change of the awareness of time, and also examined the meaning of creativity

in the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of time and the creativity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society.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exists in the structure of incorporating the individual potential into the awareness of time. If individual potentiality comes to have meaning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social structures including community, it becomes creativity. Accordingly, if a dance in the previous age is mentally meaningful to appreciate or if it is a kind of arts that is possessed, the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is a dance experience belonging to participatory structure of the awareness of time.

Since cooperation in experience implies feeling of personal ability through community, the characteristics of time and community in the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is a social involvement structure and also social participation system of dance. In the contemporary community sense, personal experience has certainty of meaning in the sharing world, which is the accessibility.

Thus, the contemporary community dance participates in society through practice of the awareness of time that has continuity with voluntary willingness.

key words > contemporary dance, post-community dance, creativity, self presentation, body, social concern

주요어 > 동시대무용, 포스트 커뮤니티댄스, 창의성, 자기표현, 몸, 사회 관여

본 연구는 동시대무용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 개념 탐구로 무용의 시대성을 시대 의식과 연관하여 탐색하였다. 커뮤니티댄스의 동시대성은 몸의 의미 탐색을 통해 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제시하였다. 무용의 개념을 인간의 사회적 행위로 규명하는 연구에서 예술행위인 무용에서의 몸은 테크닉적으로 숙련된 표현 도구였다. 그리고 우리 시대 사회적 교류의 장소에서 공유되는 커뮤니티댄스에서 몸은 소통의 도구 즉, 상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방향은 무용을 공연과 감상 혹은 창작인과 감상자 또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애호가와 문외한, 교양인과 필리스틴 philistine 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통합적 혹은 가로지르기적 사고의 시대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무용에서 몸은 사회적 차별성이나 전문성의 위계질서로 작용하는 시대를 지나, 자기 표현 도구이자 역사적이고 사회성을 지닌 개별성과 공공성을 공유하고 있는 자기표현체가 되었다. 이러한 몸이 공간과 시간에서 어떤 의지와 목적에 의해 행하는 무용이 커뮤니티댄스로 커뮤니티댄스의 시대성 탐색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무용을 왜 하느냐는 질문은 무용을 통한 시대 의식 연구가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시대무용 연구가 될 것이다.

시대성으로 커뮤니티댄스의 개념을 제시하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과정에서 무용에서 몸이 공공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이때의 몸은 사회적인 몸인 동시에 목적적인 몸이다. 그러므로 무용에서의 몸은 자신의 존재 범위보다 넓은 공동체 혹은 더 큰 사회에서의 자기인식을 위한 자기표현의 미디어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에서 자기표현 미디어로서의 몸은 테크닉적 기능성 보다는 창의성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창의성이 본 연구의 두 번째 과제로 동시대 무용에서 창의성의 의미 연구는 몸에 대한 개념 변화를 시대 의식의 변화와 연결하여 동시대무용에서 창의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무용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로 각각의 관계에서 다른 방식과 형태의 무용으로 인류의 삶속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기준이나 틀로 보면 지금의 무용은 언제나 낮설고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무엇과의 통합이고 융합인 형태로 명확히 분류되어 명명되어 있지 않은 채 존재한다. 무용의 개념은 결국, 무용의 분류하기에서 시작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무용은 그 분류의 경계를 허문 접경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명명되기 이전의 그 무엇이다.

유럽 거리춤에서 시작되어 이탈리아 궁정무용으로 완성된 **Ballet**도 연극과 오페라와 판토마임의 경계를 가로질러 접경에서 생성된 것이고, 한국 전통무용도 무교와 무악 그리고 종교 의식의 통합적 산물이다. 그렇게 삶속에 존재하게 된 생경한 무용도 결국, 다른 것들과 분류되어 기록되는 역사적 사건 중 하나가 된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 영역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학문은 문자로 기록되어 지식으로 전승되고, 기능에 따른 정신적·신체적·사회적·심리적 기능은 문화의 요소 즉, 개인의 세계관이나 시대 의식 이나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라 부르는 것들에 내포되어 계승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대중과학서적들이 학문의 영역을 역공하고 있는 학문적 연구 상황에서 기능 연구는 연구 방법 중 실패나 논쟁의 여지가 가장 적은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무용의 기능 연구는 단기간의 정량적인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는 와선적이고 비선형적 성질 때문에 기능성보다는 사회성을 다룬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 생명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감각에서 인류 생태계로 그 범위가 넓어져 시간의 흐름을 화살로 인식하기보다는 순환의 구조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사회를 생태환경사회라 부르는 학자들이 생겼고,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범위는 인류시민사회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에서 창의성의 의미를 주제로 하는 본 연구는 몸을 무용과 사회와의 연결 미디어로 본다. 그리고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에서의 몸의 개념 탐구는 기술적이고 보여지는 몸에서 역사적이고 시대성을 지닌 몸이 창의성의 플랫폼으로 그 의미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시대 의식을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이론으로는 커뮤니티댄스에 대한 **Brinson, P.**을 비롯하여 **Laban dance center**를 거점으로 하는 연구들과 **Goffman, E.**과 **Shiling C.** 그리고 **Bourdieu P.**와 **Sibony D.**의 몸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II. 동시대무용의 개념

시대무용이란 시대 의식과 관계된 무용을 말한다. 즉 무용을 통해 당시의 시대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역사 자료로 목록화되어 있는 무용이다.

역사에서 시대무용은 뮤지컬 형식의 궁정 혹은 무도회의 무용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다. 인류 공동체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 민족, 국가 등으로 그 범주가 다양해지면서 무용의 사회 관여도 다양해 졌다. 예술로서의 사회 참여가 엘리트 무용이라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민속무용¹⁾**, 민족무용, 대중무용, 민중무용, 그리고 산업도시사회에서의 커뮤니티댄스등으로 무용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시대무용에 대한 연구는 그 목적이나 내용, 방법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격에 따라 무용의 시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한 형식을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대적 생성 무용을 동시대무용으로 부르는 것은 예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질 때문이다. 시대무용은 작품의 주제로서의 사회 참여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참여성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대무용의 참여 목적이나 이유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 분야의 다양성 만큼 복잡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무용이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접근성으로 사회가 형성한 생태관에 따른 도덕관과 세계관과 동시대 인간관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무용의 이러한 정신적 참여가 몸을 매개로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원시시대 의식에서 가면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도구로서의 몸은 개인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몸으로 더 큰 공동체와 생태환경에 소속되어 공공적 혹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1. 무용의 시대성

무용의 시대성이란 무용이 내포하는 시대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원시사회에서 제의와 의식으로서의 춤이 당시 생존에 있어 두려움의 대상을 알게 하였고 그 원인 분석을 통해 시대의 문명 수준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주었다.

¹⁾ 지역성이 내포된 민속무용은 이후 (지역)사회무용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승되는 원시 공동체무용은 인류 생태계에서 생존의 법칙과 전략이 행위를 통해 계승되는 사례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명과 문화가 문자에 의해 기록되고 문자중심으로 문화가 진행되었던 서구사회는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왕(혹은 신)권 사회를 지나 민주주의와 계몽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로 표현되는 시대를 거치는 오랜 시간 무용도 엘리트 예술의 영역에서 몸을 사고의 표현 도구로 사회와 관계 맺고 있었다. 유일한 주체이자 개체적 성질을 바탕으로 하는 무용이 민주주의와 계몽주의의 근본 원칙인 경쟁과 비교의 기준을 받아들인 초기 엘리트(혹은 전문 또는 직업) 무용은 표현의 기술이 무용 테크닉으로 평가되면서 신체 혹은 시각 예술로서 움직이는 선의 균형과 조화를 역동성과 연결 하는 시각적 감동을 목표로 혁신을 거듭하였다.

유럽 중심의 문화에서 무용(Ballet)이 19세기에 완성되어 미관을 장악하는 기간은 인쇄 매체들의 기록물을 지역이나 문화의 상이성과 상관없이 인류의 역사로 공유하는 지식사회는 전자 정보 사회라는 과학의 혁명기를 지나면서 까지도 막강한 힘이 지속되고 있었다. 경쟁과 소유의 시대를 지나고 맞게된 지식정보사회는 지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그리고 개별적이고 소수, 소량, 미약 등이 사회적 소외로 인식되면서 개인의 존재성은 그 범위가 더 큰 단위나 공동체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배려와 관용은 존재 의미의 기본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공유와 배려의 시대무용은 더 이상 지리적 혹은 인종적, 성적, 문화(민족, 지역, 이념, 종교)적 무용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다.

인류 생활의 전환을 가져온 혁명기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으로 분류되었고 산업혁명기 이후 도시산업사회를 형성한 시대무용은 커뮤니티댄스라는 명칭으로 탐구되기 시작하였다. 시대무용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는 산업도시사회에서 제기된 사회 갈등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계층통합과 소수자들의 권익 옹호로 해결하려는 동시대 의식에 동참하는 무용이다. 따라서 사회 선도와 상담의 기능적 성과를 연구 결과로 보고하는 사회학적 연구가 커뮤니티댄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도시산업사회의 커뮤니티댄스가 개인의 사회 참여의 한 방식이 되면서 시대를 사는 개인들의 무용 체험은 사회 관여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공동체 소속감으로서 자아 인식의 계기가 되는 커뮤니티댄스는 그것이 어떤 형식의 춤추기이든 어떤 커뮤니티안에서의 개인이든 방식은 사회 참여이며 목적은 무용 체험으로 그 시작은 자아 인식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제시²⁾보다는 무용 체험의 지속성과 개인의 잠재력이 공동체에서 실현되어 나타나는 협력적 성취로 제시된다.

²⁾ 무용 체험후 범죄율의 감소, 개인의 사회 병리 현상 완화, 심리적 불안 및 정신적 질환 치유확률 등

결국 사회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 지속적 의지가 되고 개인의 잠재성이 공동체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무용 체험이 커뮤니티댄스이다. 소외된 개인들에게 도시산업사회의 커뮤니티댄스가 개인 의지의 교정 및 선도로 목표점을 정하게되면서 자아 탐색을 위한 몰입과 집중의 커뮤니티댄스는 제도화로 공유되는 것을 접근성으로하고 **우발적 학습³⁾**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식이 개인적 소유이던 시대에 지적 가치가 반영된 지식인의 서열이 존재 했었던 것처럼 무용을 개인적 노력과 연마의 테크닉적 결과물로 지각하던 시대에는 누가 무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일관성을 띤 규칙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기준은 무용전문인과 비전문인을 구별 짓고 무용전문인의 서열을 결정한다.

기술의 발전이 지식의 확산을 가지고 온 인쇄 매체와 tv network의 시대에도 기술적 서열은 지속되었고 무용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분류는 극명했다. 왜냐하면 이분법에서의 기준과 서열을 결정하는 규칙은 시대 의식을 내포한 미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테크닉을 소유한 몸을 규칙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은 무용을 양식의 결정체 혹은 완성된 예술작품으로 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무용에서의 몸을 테크닉의 소유체로서가 아니라 정신이나 감정등의 상호 교류를 위한 미디어로 해석하는 시대의 테크닉은 그 의미가 달라졌다. 정보 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대에는 전문적 기술을 말하지 않고도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식 정보를 교환하듯이 동시대무용도 움직임의 테크닉이나 기능적인 몸에 대한 조건적 편견없이 주관적인 몸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무용으로, 몸에 관대해진 무용이다.

현대 심리학은 상상력이 특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본능임을 밝히고 그 능력이 발현되는 실체를 **물리적인 것⁴⁾**으로 보다는 창의성이라는 잠재능력으로 정의한다. 심리학과 인지과학이 현대 학문이라는 시대적 학문으로 분류되는 데에는 과학의 대중화 시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즉, 지식이 정보인 시대에 지식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식정보 시대는 정보에 접근해서 그 정보를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지능을 확대한다. 이러한 정보혁명기에 생성된 커뮤니티댄스는 도시산업사회가 상실한 독립체로서의 자존감과 공동체에서의 친밀감과 같은 잊혀졌던 감각을 일깨우는 시대무용으로, 무용을 통해 시대에 따른 사회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대 무용이다.

3) accidental learning은 뭔가에 관해서 배우는것과 달리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이 '되는법'을 배우는 것이다(Topscott, D., 이진원 역, 2014: 211).

4) 제품, 작품 또는 이론 등

2. 커뮤니티댄스의 동시대의식

지식정보시대의 지식에 함축되어 있는 개념이 유연함이라면 그것은 개발된 지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미디어의 확장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지식의 확산은 소유가 공유로 대체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통제의 문화 **culture of control**에서 실행의 문화 **culture of enablement**⁵⁾로의 시대적 흐름이 있다. 무용이 동시대예술의 영역에서 미적 가치 보다 지적 효용성을 우선하게 된 것은 지식에 대한 개념의 전환시기인 **정보혁명기**⁶⁾와 연관이 있다. 지식의 내용이나 기억의 양 그리고 그것들의 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기준에 변화가 온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인성과 예술의 관계가 재조직되었다는 것은 피라밋 구조를 트라이앵글 구조로 해석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과 기억의 질은 진리와 사실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역동적 복잡성을 활성화 하는 시대의 지식에는 개별적 주관성에 의거한 감각에 이성적 지식과 등가의 무게가 있다. 주변의 사물을 인지하는 감각이 미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대칭적 관계에서의 소통을 목적으로 할 때이다. 따라서 감각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의 현장에서 인지로 완성된다는 것은 개별적 인지가 보다 큰 범주에서 의미를 형성하게되는 과정에서 이다. 그리고 이때 주관적인 감각이 공공성을 띠게 되는데, 커뮤니티댄스에서는 주관적 주체로서의 개인적 몸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몸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몸은 결국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관여성의 요인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댄스에서 자아상 확립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몸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정된 것을 습득하는 지식의 시대를 지나 사고하고, 협력적 학습을 통하여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지식인 되는 시대에는 지식을 만드는 구조를 아는 것이 지적 능력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식은 곧 창의성이며 이러한 시대의 무용에서 미적 가치보다 지적 효용성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결국 무용을 통해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의 무용이 시대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시대 지식의 확장이 지역커뮤니티를 넘어 인류 시민으로서의 지식 교류로 대체되듯이 동시대커뮤니티댄스도 예술 혹은 시대무용(사회, 대중, 민중, 민속 무용 등)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기라기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생애주기의 지속 학습 구조로 접근성을 가진 것이다.

⁵⁾ Topscott, D의 용어(Topscott, D., 이진원 역, 2014: 34).

⁶⁾ Pinker, S.(2011)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 인류의 생활혁명을 나누었다 (Edge foundation, 2011, 이한음 역, 2012:32).

예전의 무용이 고정되고 확정된 작품이나 제품으로 삶속에 존재하여 개인적 습득과 소유의 대상이 되고 결국, 소유나 소비가 무용의 사회 관여의 전부였다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삶에 있어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 자아를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혹은 공동체나 더 큰 사회로부터 소외시키지 않고 자신보다 더 큰 범주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의미를 찾아나가는 무용체험이 동시대커뮤니티댄스로 시대무용은 어떤 양식이나 종류로 존재하지 않고 구조로 존재한다.

일방적 전달이나 통보가 아니라 교류로서의 지식은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기술적 환경이 정착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위계질서를 가진 지식사회에서 대칭적 지식사회를 구조화하려는 시대 의식의 확산이다.

평등 사회란 모든 사람 혹은 모든 지식과 문화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하는 지식과 문화를 보다 큰 공동체인 인류생태계에서 그 의미를 찾아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데서 시작된다. 신분과 인종으로 인간을 서열화하고, 이성중심의 사고와 인쇄 미디어 편중에 의해 지식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문명의 정도와 문화의 내용으로 사회 계층을 구별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태계를 이해하는 비대칭적 관계의 역사적 사례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비대칭적 관계가 낳은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무용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이다. 예전에 본적 없는 형식의 동시대무용은 시대적으로는 생성 중인 것이고 형태 없이 구조로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식으로만이 발견된다.

즉, 동시대 무용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는 시대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무용으로 학습된 지식으로 찾아내는 그 무엇(작품, 혹은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공동체에서 찾는 상호작용과 협력행위의 소산으로 무용체험이 경험이 되는 개인의 지적 효용성으로서의 무용이다.

따라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무용체험으로 체험에서의 협력이란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자각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시대커뮤니티댄스의 시대성과 공동체성은 무용의 사회 관여 구조이자 사회 참여 체제가 된다.

Ⅲ. 포스트 커뮤니티댄스

도시산업사회 이후 생태환경사회로의 전환은 커뮤니티댄스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산업사회에서의 커뮤니티댄스와 구별하여 동시대커뮤니티댄스의 개념을 탐구하는 이유도 시대 의식의 변화가 가져온 사회의 변화 때문이다.

의식의 변화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이론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양식 즉, 행위로 감지된다. 역사적으로 특정 시기에 생성된 새로운 종류의 무용이나 이전 시대에는 없던 양식으로 발생한 무용이 동시대무용이 아니라 무용의 시대성은 무용의 사회 관여 구조이므로 동시대인들이 무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다. 즉, 동시대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우리 삶속에 무용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동시대무용 연구이다.

도시산업사회가 남긴 문제들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은 포스트 커뮤니티댄스는 사회 문제 해결 사례나 완화 정도를 기록한 전 시대의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개선한 무용체험 구조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로 존재하고 있다.

집단으로 행해지는 무용이라하더라도 무용의 핵심은 개인의 과시 혹은 자기 표현 행위이다. 그리고 무용은 기본 요소인 몸을 움직임, 시간, 공간 조성의 특정한 원리에 따라 결합시킨 체계이고 움직임과 시간 그리고 공간 조성의 원리는 보편적이고 범 문화적이다. 원리의 보편성은 무용을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무용은 기본 요소와 규칙들로 새로운 의미의 무용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무용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로 생성된 동시대커뮤니티댄스에서 기본 요소인 몸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 자체로 존재한다. 결국, 동시대커뮤니티댄스에서 몸은 감각 재현의 미디어인 동시에 주관적 자아로서 생리적인 성질과 동시에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경험만큼 지각의 여과 요소를 거친 감각체이다.

1. 포스트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관여 구조

무용을 통해 시대를 읽는 무용의 역사는 무용에서 몸의 위치를 통해 당시의 시대의식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동굴 의식에서 비롯된 춤이 가면을 벗으면서 무용에서 몸은 누구 혹은 무엇을 대신하는 역할의 몸에서 자유로워지고 몸이 주관적 실체로 자리하면서 무용이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무용은 인식 그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무용이 인식해야 할 대상에서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무용은 신체적이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의 영역에서 정신적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인간 존재의 의미는 개인적인 자아가 더 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 무용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적인 공간과 시간에서의 행위로 결국 인간의 사회활동 중 하나이다.

시대의식에 분류의 기준을 둔 커뮤니티댄스의 기본적인 사회 관여는 교육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이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당시의 의식 확산을 위해 공동 교육을 활용하였다. 상의하달형식의 교육이 일반적이던 교육현장에서 취향의 전환이 아닌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커뮤니티댄스 교육은 일반적 교육방법에서 벗어난 혁신적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일반적 교사 중심교육에서 학습자와 상호소통하는 양방향 교육에서 공동체 의식은 전제조건이 된다. 공동체를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산업혁명 후 도시산업사회는 무력감과 불화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시대로 소외와 반대 개념으로의 제도와 인간관계 그리고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했다. 당시 사회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커뮤니티댄스는 관습적인 제도로 인해 무용체험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사람들에게 극장 무용의 전통에서 벗어난 무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체, 나이, 언어 능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교제를 보완하는 계기로서의 커뮤니티댄스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무용창작을 독립심 강화의 기대로 연결하여 당시 소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인의 자아 인식을 통해 확립되는 정체성은 사회적 만남의 공동체에서 의미를 갖게된다. 이러한 무용 경험은 어떤 유형의 무용을 연마하는 예전의 교육과는 달리 비경쟁적 무용을 통한 개인들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무용 연마가 아닌 개인의 자율적 표현과 상상이 몸으로 표현되고 또 기억되는 무용체험이 커뮤니티댄스의 구조이고 이 때 기본요소는 몸이다.

자신의 존재가 몸이고 또한, 자기 표현의 미디어도 몸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에서 몸은 나와 나 그리고 나와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이어주는 미디어인

동시에 존재가 공유로 의미를 얻는 공동체 의식 혹은 사회 의식의 표상으로서의 몸이다. 이것을 사회적 몸, 연출된 몸(또는 겉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몸은 무용을 공유할 때 지각된다. 따라서 시대무용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는 소유하고 학습하던 전 시대무용과 달리 공유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한 무용 경험이 사회(혹은 공동체) 관여인 것은 무용 체험으로 얻어지는 개인적 경험의 모든 내용은 사회와의 관계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며, 개인적 의미부여가 공공성을 띠게 되는 것은 결국, 무용체험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도시산업사회의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관여는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문제 예방의 영역에서 체제를 형성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동질의 문제를 지역적 시각에서 해결하는 사고의 유연함을 가질 정도의 지식을 공유하였다.

국가를 분리선으로 보는 사회 문제의 제기를 넘어선 문제 중심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들은 사회 지도자나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연결되고 피드백이 결과 보고로 이어지는 실천 문화속에서 탐색된다. 사상과 제도 그리고 행정이 실행에 이르는 직선형 in put은 out put을 선형적으로 밖에는 지각하지 못한다.

이론과 실천의 격차를 당연히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자료로, 보다 완전한 이론을 완성하는 학문의 목표가 실천에서 피드백으로 완성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무용도 만들고 그것이 사회와 접촉할 미디어를 통해 공공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결과가 처리되고 평가가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에 의한 것으로 그 역할을 명백히 할 수 없었던 시대를 뒤로 하고 커뮤니티댄스는 사회 관여의 전제하에 기획되고 사회 현장에서 실천되며 피드백이 결과 보고가 되는 구조로 **공동체의 사회 행위⁷⁾**들 속에 존재한다.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구조는 무용의 사회관여 방식은 물론 동시대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혁명기의 사회 변화가 남긴 문제를 도시산업사회의 커뮤니티댄스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시산업사회 이후 정보 혁명 시대의 사회문제는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관여 구조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무용의 접근성을 마주하면서 시대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대무용은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를 원칙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 만큼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움직임에 의미를 붙이고 대중의 이해 수준이 높았던 시대는 없었다. 반면, 무용에 과도한 이념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직관(혹은 역사적 지식에 의한 선입견)에 맞는

⁷⁾ 사회교육, 교육복지, 생활복지, 문화교육, 평생교육, 시민교육, 대안교육, 대중인문강좌, 예술교육, 예술치료, 표현치료, 예술 상담, 봉사활동, 각종 체험활동, 여가 활동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적 사회 활동.

무용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무용은 **사회적 활동⁸⁾**로만 인식할 뿐 무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참여했던 무용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체험한 공공적 예술 행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소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몰입의 체험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용체험의 방식은 동시대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미디어의 종류 만큼 다양하다. 자신이나 공동체의 생각을 표현하는 미디어가 자율적 선택인 시대에는 무용도 수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다른 이념적 방향으로 원하는 무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무용이 가진 기본 요소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형태와 방식의 무용체험 구조를 만들고 또 그 구조에서의 행위를 무용으로 알아보는 것이 창의성이자 곧 무용 지식인 시대무용이다. 즉,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시대적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저장하고 있는 몸을 미디어로 개인의 생각을 방출하고 그 생각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더 큰 힘 즉, 공동체 의식으로 완성되는 구조의 사회 관여에서 조직되고 생성되는 무용이다.

2. 자기표현으로서의 몸과 창의성

몸이 어떤 고통 앞에서도 생동하려는 희망으로 붕기할 때, 의지할 곳 없는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무용이다(Sibony, D., 1995:32).

몸은 어떤 상황에서건 스스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확립한다. 몸의 움직임 체제는 당시 그곳에서의 느낌을 몸을 통해 노출하는 것이다. 즉 꾸밈 없는 정서의 표현이 몸의 움직임이다. 몸은 언제나 정서의 표현체로 현재의 몸은 과거 정서의 기억인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자기 표현의 매개로서의 몸은 현재 생성중인 느낌의 노출에 과거의 지식 또는 정서 기억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표현으로서의 움직임 주체인 몸은 주관적 개인의 시대적 몸으로 지식과 정서적 기억의 역사성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무용의 개념 해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도시산업사회에서의 커뮤니티댄스와는 또 다른 포스트 커뮤니티댄스라 할 수 있는 생태환경사회의 커뮤니티댄스를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무용이 사회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시대

⁸⁾ 여가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상담 및 취유 등

커뮤니티댄스와는 전혀 다른 구조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 커뮤니티댄스가 예전의 무용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몸이다. 왜 춤을 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몸이 무용을 하느냐가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의미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전문무용은 후 세대로 오면서 예술로 그 양식적 특성을 혁신하면서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였다. 작품으로서의 엘리트 전문무용이 개인적 이념과 의지를 현현하는 것이라면 시대무용은 인류 생태계 만큼의 역사를 지닌 인간의 몸을 창으로 보다 넓은 생태계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시사각각 생성해 내는 체험이다.

과학과 예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천재의 시대에서 기술은 목적을 위한 도구였고 목적을 위해서 기술은 수용해야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때의 무용은 테크닉 학습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몸의 기능성이 서열화되던 시기의 테크닉적인 몸은 무용을 위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무용은 일정한 규칙과 수준에 맞추어 준비된 몸을 필요로 했고, 준비된 몸이 아니면 당시의 무용은 결과 지점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확장이 시작된 시대에서의 무용은 몸의 다양성에 관대해졌다. 그래서 산업도시사회에서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적으로 비참한 사람들을 덜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의지에 동참했다. 그 결과 소외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가 체계화 하였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 불리한 건강 상태, 불리한 입장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종 차별과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사회 논쟁과 연결된 것이 도시산업사회에서의 커뮤니티댄스였다. 그러나 심리치료나 정신치료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학과는 달리 커뮤니티댄스는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 개발을 통해 정신의 확장을 목표로했다.

심리 및 정신 상담과 치료가 정신적 안정을 목표로 한 것에 비해 커뮤니티댄스는 창의성이 기본 요소인 무용은 주관적 개인으로서의 참여와 공동체와의 협력이 생각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이 진행되는 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는 협력과 참여 그리고 **상담⁹⁾**을 접근성으로 사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시산업사회의 커뮤니티댄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고 그 문제를 완화하는 구조의 시대무용이었다면 그 때의 창의성은 공동체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즉,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문제 인식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공동체와의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⁹⁾ 사회적인 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몸이 보다 큰 범주인 공동체나 사회에서 그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는 자아인식 혹은 자존감

문제 의식으로 사회에 관여한 커뮤니티댄스가 제 2기를 맞이 한 것은 규범적 지식과 문화에서 실천적 문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지식과 인성 그리고 예술과의 관계가 재조직되면서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습성조차도 재조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커뮤니티댄스 **post-community dance**는 다양한 몸을 다양한 역사적 존재로 인정한다. 그리고 주관적 개인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동일성을 찾아내어 협력의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체험 구조로 존재한다. 인간 정신의 확장 경험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존재하는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역사적 몸을 매개로 하여 생각의 상호교류를 통해 자율적 의지를 발견하는 체험이다.

무용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그것을 자아 밖으로 증폭시켜 나가는 즐거운 삶이 도시산업화 사회에서 커뮤니티댄스의 접근성이었다면, 포스트 커뮤니티댄스라 할 수 있는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자신에게 잠재된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재편하는 좋은 삶이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에서 개인의 창의성은 개인의 잠재된 능력 개발이며 공동체의 창의성은 동시대가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이시대가 잃어버린 친밀감과 애정 감각은 결국 공동체 의식의 요소이며, 자기표현인 무용의 내면에는 독립성(정체성 혹은 자기 과시)의 징표인 몸이 있다.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 의식이란 의식 공동체와는 다르게 공동체를 통해 찾아지는 동일성으로 선포되거나 예전에 정의된 적 없는 시대 의식이다. 그리고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기본 요소인 몸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유연하고 테크닉적인 몸이나, 안정이나 치료가 필요한 결핍 판단이 내려진 심리적 혹은 정신적 반향으로서 몸이 아니라 독립적 주체로서의 몸으로 생리적인 반면 **역사적**¹⁰⁾이기도 한 몸의 유기성을 인정하는 몸이다. **Sibony, D.**(1995:335)는 몸과 관련하여 무용의 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몸의 사회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요소인 개인의 독립성과 공동체와의 친밀한 인간관계는 주체의 존엄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무용체험에는 윤리교육으로서의 접근성이 잠재되어 있다.

¹⁰⁾ Goffman, E. 은 전면영역과 후면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산업 혁명기를 지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소외라고 본 도시산업화사회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조직한 커뮤니티댄스는 불화와 갈등의 완화로 자아상 확립과 사회계층 통합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능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커뮤니티댄스는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창의력의 의미를 공동체에서 발견하는 구조를 가진 무용이다.

시대가 잃어버린 개인적 독립성이나 친밀감 그리고 애정 감각들이 초래한 사회 문제에 커뮤니티댄스가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회에 접근성을 가졌던 것은 산업사회가 지속되면서 친밀감 같은 잃어버린 감각들을 무용 체험과정에서 되찾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산업도시사회 이후의 커뮤니티 댄스는 지구상의 사람들 수 만큼의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관여하고 있다. 즉, 예전의 고정된 형식의 무용, 특정 대상을 위한 구조화된 무용에서 포스트 커뮤니티댄스는 사회 서비스의 체제로 접근성을 가지게 되었다. 몸에 대해 관대해진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몸을 정신과 문화의 역사적 집결체로 보고 보여주는 몸과 자신 본연의 몸을 의지 표명으로서의 자신과 무한한 잠재체로서의 개인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체 즉 이성적 지식과 문화적 관습을 기억으로 지닌 개인의 의지와 잠재력이 의미를 획득하는 곳이 사회 즉, 공동체이다. 사회적 결핍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힘을 창의성이라고 규정하는 본 연구의 진행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용 자체 즉 고정된 무용의 사회 관여성 보다는 사회 서비스의 구조로 존재하는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무용 체험이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참여한 무용 체험의 과정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적인 목표와 명확하지 않던 의미가 분명해지고, 개별적 체험이 공공성을 띠어 경험으로 완성되고 지식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무용은 개인의 잠재력 계발인 동시에 생애주기동안 지속적 학습의지를 갖게 하는 인간 정신 확장의 의미가 있으므로 무용 체험은 결국 경험적 지식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지식의 영역에서 무용은 지식과 테크닉의 소유 시대에서 공유와 확산의 시대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커뮤니티댄스의 동시대적 접근성은 서비스 구조로 존재한다.

결국,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개인의 잠재력을 시대의식과 결합하는 구조로 존재한다. 그리고 창의성은 개인의 잠재력이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구조들과의 상호관계에서 공동체들의 시대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전 시대의 무용이 정신적 감상에 의미가 있는 작품이나 소유하는 유형의 예술 종류였다면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개인들의 사회 참여 구조로 존재하는 무용 체험이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이 공유의 구조에서 의미의 확실성을 획득하는 접근성을 가진 동시대 커뮤니티댄스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의 시대 의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관여 한다.

참고문헌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du Jugement*, 최중철(역, 2006), **구별짓기**, 새물결.
- Brinson, P.(1991), *Dance as education Towards a National Dance Culture*, London: The Falmer Press.
- Edge foundation(2011), *The mind*, 이한음(역, 2012), **마음의 과학**, 와이즈베리.
- Goffman, E.(1959), *Impression Menegement theory*, http://www.fsc.yorku.ca/york/istheory/wiki/index.php/illusion_of_control
- Sibony, D.(1995), *Le corps et sa danse, Seuil*.
- Shiling C.(1993), *Body and social theory*, 임인숙(역, 2011), **몸의 사회학**, 나남.
- Topscott, D.(2009), *Grown up digital ;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역, 2014),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북스.